

고흥, 에너지 아끼고 현금도 받고...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에너지 절약 356가구에 상반기 인센티브 1천2백만 원 지급



고흥군청 전경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 하반기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 가운데 에너지 사용량 절감 실적을 달성한 356가구에 총 1천2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가에서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감축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현금 등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전국 단위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고흥군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담 배포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누리집(cpoint.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강종수 기자

보성군, 북부 4개 면 의료 공백 해소 나선다

해남군, 소상공인 경영비 3종 지원사업 본격 추진

보성군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북부 4개 면(북내, 결백, 울어, 문덕)을 대상으로 권역 거점 중심 보건지소 운영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체계는 복내면을 중심으로 한 권역형 모델로, 복내보건지소가 상시 의과 진료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권역 내 나머지 3개 면은 보건지소 전담공무원이 의과 진료를 담당하는 통합형 보건지소 체계로 운영된다.

복내보건지소는 상시 진료를 통해 주민들에게 만성질환 관리, 건강상담, 예방 중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근 면 지역 주민들도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어 북부권 1차 의료서비스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권역 내 3개 면에서는 보건지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맡아 의료취약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강종수 기자

해남군은 최근 고유가·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3억 6,6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비 3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해남군 내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기요금, 해남사랑상품권 카드수수료, 공공배달앱 먹게비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지원 내용으로는 사업장에 부과된 전기요금 지원 10만원, 해남사랑상품권 카드 가맹점일 경우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0만원, 공공배달앱 먹게비 가맹점에는 배달 1건당 1,000원의 배달수수료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2026년 6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사무소 또는 해남군청 농촌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윤보현 기자

'진도 나가자! 서해랑길 걷기 여행' 첫 출발

장흥군4-H연합회, 공동과제 포 모내기 영농기술 공유

진도군관광협의회는 오는 6월 13일(토)에 「진도 나가자! 서해랑길 걷기여행」 첫 행사를 개최해 진도형 걷기 관광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대표 장거리 걷기 길인 '코리아둘레길 서해랑길 진도구간'을 활용한 체험형 걷기관광 사업으로, 진도의 역사와 문화, 생태자원을 접목한 새로운 관광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첫 행사가 열리는 서해랑길 6코스 '명량의 길'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가 신청한 걷기 여행객 70명이 방문할 예정이며, 협의회에서는 4명의 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진도군관광협의회에서는 서해랑길 안내 리본과 표식이 부족한 구간을 별도로 정비해, 참가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이가영 기자

장흥군은 최근 장흥군4-H연합회(회장 임선호) 주관으로 장흥읍 행원리 식량작물 공동과제포에서 모내기 작업과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새청무벼 생산단지 운영을 통해 회원 간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신규 4-H 회원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신기술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청년농업인 4-H 회원들은 공동과제포에서 기계 모내기 작업을 직접 수행하며 벼 재배기술을 익히고, 공동과제포 운영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장흥블루-청년농부 연구회'가 주관한 농업용 드론 시연회를 통해 스마트농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최신 농업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백두연 기자

완도군, 전국 최초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 본격 운영



완도해양치유센터 전경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이 전국 최초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완도의 바다, 숲, 섬 자원과 해양치유 콘텐츠를 연계해 국민 건강 회복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마련됐다.

운영 기간은 6월 14일부터 11월까지이며, 여름 성수기인 7, 8월은 운영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은 ▲해양치유 바다 걷기 ▲바다놀이 ▲슬로우 아웃 도어 ▲힐링 스테이 ▲전문 치유 스테이 등이 운영된다.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과 해변운동, 전복 등 완도 자원을 활용한 쿠킹 클래스, 완도 투어 등을 연계해 완도 전역을 하나의 치유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군은 장기 체류에 따른 참가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람이 해양치유를 할 수 있도록 참가비를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참가비는 지원 금액을 반영하여 1박 2일은 8만 원, 5박 6일은 30만원이며, 해양치유를 경험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완도군과 완도해양치유관리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프로그램 본격 운영에 앞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과 5월 두 달간 약 4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시범 운영 결과 해양치유센터 프로그램과 해변운동, 치유 식단, 완도 투어 등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완화와 수면장애 개선, 심리적 안정 등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시범 운영 결과를 반영해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이고, 해양치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문수 기자

